

# 모든 학교 교과에 'AI 융합 수업'... 전문교사 1000명 육성

## 서울시교육청 AI교육 중장기 계획

AI융합 교육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격차 해소 등 3대 과제 추진  
올 75억 등 5년간 476억 투입  
AI로 학생 진단하고 피드백도

서울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교과에 인공지능(AI) 관련 프로젝트 수업이 도입된다.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할 때도 AI 기술을 활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교사 1000명을 AI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학습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서는 AI 튜터를 활용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은 첨단 과학정보기술 기반 융합 교육을 통해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교육환경 등 학교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AI 기반 융합 교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 ▲AI 기반 맞춤형 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AI 기반 초개인화 학습환경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캡처

조성 등을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5억원에 이어 2022년 107억원 등 총 5년에 걸쳐 476억원을 투입한다.

### ◆AI플랫폼 활용, 학생 성장 데이터 수집·맞춤형 지원

AI를 기반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AI 기반 융합교육을 도입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놀이 중심으로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실생활과 연계한 문제 해결 중심 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교과 수업은 AI 관련 역량 강화와 관련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교과 내·교과 간 AI 융합수업을 실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학교장 개설 선택 과목을 통해 AI 관련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AI 더빙 기술을 활용한 미술 교과 애니메이션 제작 메이커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AI 의사의 의료 과실이나 자율주행 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토론하는 수업도 가능하다.

평가 또한 AI 플랫폼을 활용해 과정 중심평가와 교육활동 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이뤄진다. AI 플랫폼을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 변화와 성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과 성장지원을 실시한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

한 근거 자료로도 AI를 활용한다. AI를 활용해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기록)에서 학교단위 평가 결과와 교육활동 분석을 통해 학습결손 및 학생별 강점 등을 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과 사회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별·상황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AI전문 교사 1000명 양성...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AI 튜터' 활용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서는 'AI 튜터'를 활용한 지원을 추진한다. 난독·난산·경계성 지능 학생 2000명을 선정해 학습 이력을 분석하고 수준과 특성에 따른 지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원씩을 투입하며, 재원은 추경 예산을 편성해 마련할 방침이다.

AI 교육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100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사의 AI 교육대학원 진학과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연수와 컨설팅을 담당하는 200명의 AI 선도교사단을 운영한다.

AI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1학생 1스마트기기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중·고교 신입생에게 지급되는 30만원의 입학준비금과 저소득층 학생 스마트기기 무상지원 사업 등을 통해 모

든 학생이 교육용 스마트기기 1대를 갖도록 캠페인도 벌일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 실행을 위해 약 4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약 70억원을 비롯해 ▲AI 교육 교구 구입 약 46억원 ▲AI 윤리교육 자료 개발·보급 1억3000만원 ▲장애학생 AI 기자재 지원 7억5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다만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 AI튜터 등 많은 상당수가 추경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부 계획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취약계층 대상 AI 튜터 활용 등 '맞춤형 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영역은 사업 예산 총 4억7000만원 전액이 추경으로 추진된다. 데이터 기반 학교환경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AI 전시관·체험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등 'AI 기반 초개인화 교육환경 조성'에도 3억9000만원의 추경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이미 AI 맞춤형 수업과 환경 조성에는 서울시회와 공감대를 마련했다"며 "갑자기 맞이한 인공지능 발 교육환경의 변화가 자칫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AI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hj@metroseoul.co.kr

# 대학·지역 손잡고 인재 양성... 1710억 투입

##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지자체 4곳서 8곳 내외로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취업해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 규모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9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사업의 첫 해인 지난해 선정된 경남, 충북, 광주·전남 플랫폼을 지속 지원하고, 올해 복수형 플랫폼 1곳

을 신규 선정해 기존 단일형 플랫폼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수형 신규 선정과 전환 지원을 통해 현행 4개 지자체에서 8개 내외의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을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효과 창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국비 1080억원이 쓰였지만, 올해는 1710억원이 확대 지원된다.

또 지역혁신 플랫폼이 제안한 사업 개선·연계방안은 지방대육성지원위원회 및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조정하는 등 향후 플랫폼이 지역인재양성정

책의 총괄기구로서 역할을 정립하도록 상향식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6월1일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플랫폼 구축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해 플랫폼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복수형 및 전환 플랫폼 대상 사업 신청 예비 접수는 3월9일, 사업계획서 접수는 4월16일 마감되며, 최종 평가 결과는 5월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혁신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접수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3월 중 사전 상담을 실시한다. /세종=한우수 기자 hys@

## 호서대 실내디자인학과 온라인 포트폴리오 오픈

호서대학교는 실내디자인학과에서 국내 최초로 5년 연속 재학생의 디자인 작품으로 이뤄진 온라인 포트폴리오 'hu-spacelab.com'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hu'는 호서대(Hoseo University)의 영문약자를, 'spacelab'은 공간실험을 의미한다. 호서대 실내디자인학과는 1학년부부터 4학년까지 재학생 전체 작품으로 구성된 학과명의 전공서적 '공간실험일지(Space Lab File)'을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최초로 5년 연속 출간해 바 있으며, 이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2016년 'hu-spacelab.com'을 구축했다. /이현진 기자

## 송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학술총서 10권 발간

송실대학교는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 사업단이 그동안 일궈낸 연구 성과를 모아 총 10권의 총서(사진)를 펴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국고사업인 인문한국플러스(HK+)에 선정돼 지난 2018년부터 '근대전환공간의 인문학, 문화의 메타포시스' 아젠다를 연구하고 있는 본 사업단은 연구 성과를 대내·외적 확산하고 집적하기 위해 ▲인문학 총서 ▲자료 총서 ▲번역 총서 ▲대중 총서 분야를 집필하고 있다.

이번 발간된 10권 중 '심리학과과서', '신원생리학과과서', '교사양성 주



일학당 교과서'는 근대 개화기 교과서를 담아낸 자료 총서로, 한국 근대교육의 도입과 그 영향을 폭 넓게 담아내고 있다. 인문학 총서 중 '근대 문화의 수용과 변용'은 2권으로 나뉘어 집필됐으며 혼인관과 기독교 윤리 및 학문 분야의 수용과 변용을 다양한 소재로 규명한다. /이현진 기자

#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제조 교육생 모집

## 5개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 데이터 완전성 과정도 신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상반기 신규 과정을 반영한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교육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GMP교육 중 3~4월에 시행하는 5개 과정은 실시간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했으며, 4월 이후 과정부터는 현장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종전의 오프라인 방식 교육을 검토 중이다.

이번 상반기 GMP교육에는 ▲Data Integrity(데이터 완전성)과정 ▲의약품과정을 추가했다. Data Integrity 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품질 신뢰성 보증체계 강화를 위해 GMP에 대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수립,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신설한 것이다. 의약품과정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의약품 제조 증가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수요를 반영해 신설했다.

수강신청이 가능한 상반기 교육과정은 3월 첫째주에 예정된 GMP일반과정 을 비롯해 ▲품질보증과정 ▲품질관리과정 ▲R&D(연구개발)을 위한 GMP 과정 ▲Data Integrity과정 ▲의약품과정 ▲ICH(국제약품규제조사위원회)가이드라인 해설과정 ▲제조관리과정 ▲제조지원관리과정 ▲밸리데이션 총론과정 ▲밸리데이션 무균제제과정 ▲밸리데이션 비무균제제과정 등 12개 과정이다.

하반기 GMP교육은 9월 2~3일 '바이오의약품 GMP과정'을 시작으로 ▲일반과정 ▲품질보증과정 ▲품질관리과정 ▲ICH 가이드라인 해설과정 ▲통계과정 ▲제조관리과정 ▲밸리데이션 총론과정 등 총 8개 과정이 예정돼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사이버한국외대, '컨벤션기획사 자격증 대비과정' 운영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케이무크)에서 '컨벤션기획사 자격증 대비과정(2급): 게임화융합설계' 묶음강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컨벤션기획사자격증 대비과정(2급): 게임화융합설계' 강좌는 3월 29일까지 수강신청을 진행하며, 3월 2일

개강해 6월 14일까지 총 15주 동안 강좌를 운영한다.

강좌는 MICE 산업의 핵심인 컨벤션, 전시, 이벤트, 관광 분야를 기획하는 전문인력인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 취득을 대비할 수 있는 콘텐츠다. 2019년 12월 처음 묶음강좌를 선보인 이래 3차례 운영됐으며, 누적 수강생은 6540여 명이다. /이현진 기자